

문화 활동을 위한 財源의 조달 : 한국

李 成 美*

차 례

- I. 국가 正體性으로서의 文化
- II. 프랑스와 한국의 문화에 대한 국가 예산
- III. 정부에 의한 財源의 조달
- IV. 기업 부문의 예술 지원
- V. 개인 財源을 예술 후원에 쓰도록 유도하는 방법
- VI. 문화활동을 위한 財源의 보다 효율적 管理 방안

I. 국가 正體性으로서의 文化

오늘날 세계가 추구하고 있는 개방적인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국가 상호간의 정치적 국경이 점차 무의미하게 되어버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국가와 국민을 다른 민족과 구별해주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이다. 세계 문화의 바로 그러한 다양성이 이 세상을 매우 흥미롭고 역동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21세기로 들어가는 중요한 기점에서, 각 나라는 自國의 문화 정책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뮤엘 헌팅톤(Samuel Huntington)은 앞으로 다가올 세계적 갈등은 근본적으로 理念的이나 경제적인 것이 아닌 각 민족간의 서로 다른 문명에 기인할 것이라는 유명한 假說을 내놓았는데¹⁾ 이는 상당히 수긍할 만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그러한 충돌을 피하거나 아니면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기 다른 문명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각 민족과 문명의 문화적 특징들은 그들 문명의 각 주체들이 상호 이해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쉽게 이해될 수 없을 것이다.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교수

1) Samue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문명의 충돌?) *Foreign Affairs*, Vol. 72 No. 3 (Summer, 1993), pp. 22-49.

지진의 斷層에서 일어나는 충돌과도 같은 서로 다른 문명의 충돌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서는 문명의 각 특징들을 오히려 강화하고 전면으로 부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모순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겉으로는 모순처럼 보이는 그러한 노력에 의해 우리는 갈등에서 평화적인 共存으로 그 방향을 선회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우리가 서로 다른 문화와 각자의 문화 유산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창조 정신의 효과적인 전파를 통하여 문명간의 상호 존중과 이해를 증진시킨다면 예견된 바와 같은 문명간의 충돌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 있어서, 특히 한국에서는 문화에 관한 문제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이유로 인해 국방, 경제, 상업, 건설 등과 같은 다른 현안들에게 우선순위를 빼앗겨왔다. 정책 입안자들의 문화에 대한 이처럼 낮은 인식은 바로 그 나라의 진정한 이미지의 핵심인 문화 유산과 민족의 창조성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시킬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문화적 이미지와 正體性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非常措置에 상응하는 과감하고 새로운 문화 정책을 立案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중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皇室과 황실의 재정적 후원을 받은 불교 사원이 예술의 가장 큰 후원자이자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여 왔다. 17세기 후반기, 즉 중국에서는 明末과 淸初로 가면서, 그리고 일본에서는 에도(江戶)시대 이후에 부유한 商人들 또한 예술 후원자로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도 朝鮮 後期에 상업의 발달로 인해 몇몇 부유한 개인 후원자들이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예술의 발전은 대부분 국가적 후원에 의지하였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러한 역사적 양상이 대체로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세계적으로,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서는 국가의 예술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준다. 1997년도 후반기부터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와 한국을 휩쓸고 있는 경제적 불황은 그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1998년 한국 경제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GNP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실업률은 前例가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러한 상황 아래 예술에 대한 지원문제는 제기하기조차 어려운 일이다.

한 국가의 문화 유산이란 한 세대의 부주의로 인해 일단 한번 없어지면 재창조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라 할지라도 지속적인 注意를 요한다. 만일 국가가 더 이상 문화의 주된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사회의 다른 부문들이 대신 그 임무를 맡아야 한다. 즉 개인 사업가들, 예술 단체, 개개인 모두가 국가의 문화 유산을 지키고 창조 활동을 증진시키는데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II. 프랑스와 한국의 문화에 대한 국가 예산

전 세계의 여러 나라들 중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문화의 나라”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두말없이 동의할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에서 우리는 한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1959년부터 찰스 드 골(Charles de Gaulle)의 강력한 지도 아래 앙드레 말로(Andre Malraux)가 이끄는 독립적인 문화부를 설립하였고, 국가의 전체 예산 중 문화부 예산을 점차 증가시켜 1987년까지 전체 예산의 2.2 퍼센트라는 놀랄 만큼 높은 수치의 예산을 문화부에 할당하기에 이르렀다.²⁾ 가난한 자들이 富者들의 취향을 유지시키기 위해 돈을 내고 있다는 항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정책 입안자들은 文化國으로서의 프랑스의 이미지가 결국은 貧者와 富者 모두에게 똑같이 이익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듯하다.

대중 매체와 대중 문화가 범람하는 오늘날의 세계 속에서는 오직 몇몇 문화적 產物과 행사만이 경제적으로 자금자족하거나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대개 대중 예술의 범주에 속한다. 만일 한 사회가 건강하게 다양한 예술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익이 없고 非대중적인 예술도 양성하고, 보호하고, 재정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문화 유산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은 금전적 이익을 하나도 볼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문화 유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문화적 자원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정부는 非대중 예술을 지원하는 기본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새롭게 출범한 한국 정부는 행정조직 개편과 더불어 문화관광부를 신설하였다. 1990년부터 1993년까지 독립적인 문화부가 짧은 기간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현대사를 통틀어 “문화”는 정부 조직 내에서 항상 다른 업무와 결합되어야만 했다. 우선 문화교육부가 있었고 다음에는 문화공보부, 가장 최근에는 문화체육부가 그러하다. 독립된 문화부를 갖고자 하는 많은 한국 국민들의 열망은 또다시 실현되지 않았다. 이는 문화에 대한 낮은 자부심과 정부 지도자들의 의식 속에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반영한 것이다. 새롭게 설립된 문화체육부의 문화 부문을 위한 1998년도 예산은 전체 예산의 0.57퍼센트로 책정되었으며 이 수치는 원래 문화관광부가 기대했던 것 보다 10 퍼센트 정도 낮은 것이다. 金泳三 前대통령이 임기 기간 동안 문화 예산을 전체 예산의 1퍼센트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 오귀스틴 지라드(Augustin Girard), "The Ministry of Culture," in Robert Stewart, *The Arts, Poitics and the Purse*. 이 보고서는 1987년 3월 4일부터 5일까지 영국 런던의 예술 위원회(Arts Council)가 개최한 "예술 기금 조성에 관한 국제 회의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Structure of Arts Funding)"에 제출된 것이다.

5년 동안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동안 2000년까지 문화 예산을 전체 예산의 1 퍼센트로 올리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이 그러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인지는 의문스럽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현재의 문화정책의 위협성을 온 국민에게 경고할 필요가 있다. 교육을 통해 정책 입안자들과 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우리 나라의 인상을 “문화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우리 문화 자체를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해외에서 우리 나라의 산업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따라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 물론 이것은 장기간의 목표가 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목표를 세워야 한다.

Ⅲ. 정부에 의한 財源의 조달

정부의 전체 예산에서 문화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점차 높이는 것 만으로는 현재의 문화 활동을 위한 財源 부족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한국국제교류재단(The Korean Foundation)과 한국문화예술진흥원(The Korean Culture and the Arts Foundation)이 있으며 이들은 半정부, 半民間 단체이다. 이 기관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들이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금 마련을 위해 직접적인 지원을 한다. 그 외에도 국제교류재단의 수입은 旅券 수수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 것으로 충당된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수입원은 미술관, 예술 공연장, 극장의 입장료에 부과된 세금이다(요금의 2~10%). 그러나 국제교류재단의 경우 예술 관련 활동은 전체 예산의 불과 5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³⁾

국제교류재단에서 지원하는 예술 관련 활동은 해외에서 개최되는 강연이나 전통무용, 음악회 같은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외국의 미술관 內 상설 한국 미술실을 설치하고 유지하는데 자금을 제공하기도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국제교류재단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로스 엔젤레스의 Los Angeles County Museum, 샌프란시스코의 Asian Art Museum을 포함한 미국 내의 주요 미술관에 상설 한국실을 설치하는데 자금을 제공하였거나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유럽에서는 대영 박물관과 파리 기메(Guimet) 박물관 역시 앞으로 개관할 한국실을 위한 기금을 받았다. 미국과 유럽에 있는, 규모가 더 작은 미술관들도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아마도 가장 성공적이고 홍보가 잘 된 경우는

3) 이것은 국제교류재단의 1995년도 연간 보고서에 기초하여 대략적으로 계산한 수치이다.

메트로폴리탄 한국실일 것이다.⁴⁾

한국 전통 예술의 중요성을 중국, 일본과 같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예술과의 상호 연관 속에서 생각해 본다면 세계의 주요 미술관에서 한국실의 설치는 매우 늦은 감이 있다. 세계의 일반 대중들에게 우리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일은 한국이 문화국이라는 인상을 심어 주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본다. 지금까지 국제교류재단이 기울인 노력은 가상할 만하며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더욱 강조하자면, 이러한 문화활동을 지원하는데 돈을 쓰는 것이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가적 규모의 새로운 자금원을 강구해야만 한다.

우리 나라에도 미국의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 또는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NEH) (1965년 설립)처럼 예술 활동 지원의 기본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비록 이 두 조직 모두 1978년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전체 예술 지원의 불과 12 퍼센트만을 차지하고 있으나,⁵⁾ 문화적 다원주의를 주창하는 이들 두 기관의 정책은 예술 활동에 있어서 건전한 수준의 다양성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NEA와 NEH의 낮은 비율의 예술 지원은 미국에서 개인적 차원의 예술 후원이 1978년에는 65 퍼센트라는 경이적인 수준을 차지하였고⁶⁾ 1992년에는 83퍼센트까지 증가하였다는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다.⁷⁾ 따라서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개인에 의한 지원이 아직은 충분하지 못하므로 국가가 예술을 후원하는 비율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전문가들이 제시한 문화 활동을 위한 기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중에는 한국 정부가 아직 시도한 적이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문화 복권을 신설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적 목적을 위한 특정한 비율의 특별세를 부과하는 일이다. 복권 문제에 관한 찬, 반론은 와타나베 씨의 "Background Document"에서 논의되었다. 이 글에서 그는 복권은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사는데 반해서 그러한 복권의 수입으로 지원된 예술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회 계층이 향유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⁸⁾ 필자도 역시 바로 그

4) 1998년 7월 6일,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Arts of Korea"라는 특별전과 함께 한국실을 개관하였다. 이 특별전은 1998년 6월 24일까지 계속되었다. 또한 미술관 측은 "Arts of Korea"라는 제목으로 512 쪽에 달하는 책을 출간하였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한국실을 짓기 위해 미술관측에 300만 달러를 지불한 것 외에도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보조금도 제공하였다.

5) 이영권 編, 『文化財源』(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9), p. 280, 표 1.

6) 『文化財源』, p. 280, 표 1.

7) 미치히로 와타나베(Michihiro Watanabe), "Mobilizing Resources for Cultural Activities", p. 15. 이 논문은 1998년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스위스 스톡홀름에서 열린 "문화 정책 발전을 위한 국제 회의(the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Cultural Politics for Development)"에서 UNESCO에 제출된 것이다.

8) 와타나베, 위의 글, p. 23.

와 같은 이유로 문화 복권 신설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비록 복권을 일반적이거나 특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나라가 많지만 복권이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건전한 것이 아니므로 장려할 만한 것은 못된다.

문화세를 부여하는 문제는 그 가능성을 좀 더 여러모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 목적세를 신설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문화 이외의 다른 부문에서도 그와 비슷한 이유로 특별목적세를 신설할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우리 문화에 대한 인상이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를 깨닫는다면 적어도 제한된 기간 동안이라도 문화세를 부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만하다. 아직도 대다수 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TV 시리즈 MASH에 비추어진 한국 전쟁 당시의 그것과 별 차이가 없는 정도이다. 한꺼번에 미국 시장에 범람한 한국産 공산품이 한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상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하였다. 지구상 여러 다른 나라들에게는 한국은 여전히 未知의 국가로 남아 있다.

한국에는 1974년부터 1990년까지 일반 국민들에게 소득세, 전화세, 수입품 관세, 국내 소비세, 상속세 등 다양한 세금에 防衛稅라는 특별 목적세를 부과한 전례가 있다. 그 비율은 획일적이지 않았고 2.5 퍼센트에서 30 퍼센트 범위에서 항목별로 차이가 있었다. 방위세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군대를 현대화하고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데 있었다. 특별 방위세는 계획된 목적이 달성되고 또한 국가의 세입이 방위 需要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증가하였을 때 폐지되었다. 필자는 문화의 경우 목표를 지정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며 또 그것이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것은 더욱 더 힘들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모델을 다시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前 문화부 장관 이어령 씨(임기: 1990. 1- 1999. 12)는 최근 “우리는 문화라는 나무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 문화의 비상등을 빨리 켜야 한다”고 경고하였다.⁹⁾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지방 자치 제도가 확산되는 현 時點에서 중앙과 지방 정부간에 문화적 경비를 분담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은 지역 문화의 유적들을 보호하는 책임을 각 지방 정부로 移讓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지방 문화자치 정책은 각 縣마다 각자의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에서 잘 실행되고 있는 듯하다. 일본에서 이러한 지방 단위의 문화 기구 운영이 성공적일 수 있는 이유는 富와 권력이 각 지방을 중심으로 분산되어 발달했던 역사적인 전통에서도 기인한 듯하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은 지방 단위로 문화를 운영할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중앙과 지방간의 문화 경비 분담은 원칙이나 이론으로는 좋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단계이다. 지방에 있는 문화 시설로부터 들

9) 이어령, 「문화의 비상등 켜 때」, 『朝鮮日報』, 1998, 3월 9일.

어오는 수입은 지방의 문화유산과 시설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방에는 또한 문화재를 책임지고 보호할 만한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이다. 예술 행정가와 높은 수준의 예술 분야 전문가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V. 기업 부문의 예술 지원

한국에서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하여 기업이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 첫째는 1994년에 설립된 한국 메세나 (Korean Mécénat)로 알려진 단체를 통하는 것이다. 이 단체에는 161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 예술 후원회(Korean Business Council for the Arts: KBCA)라고도 한다.¹⁰⁾ 또 다른 하나는 삼성이나 현대, 대우와 같은 몇몇 대기업이 설립한 재단을 통한 것이다.

KBCA는 예술 단체들 또는 예술인 개개인과 후원 참여 기업들 간의 중개 역할을 하고 있다. Mécénat 활동에 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KBCA는 중소기업들에게까지 세금 혜택 뿐만 아니라 그들이 문화의 수호자라는 기업 이미지를 통해 상품 판매를 늘릴 수 있는 직접적인 “보상”을 약속하여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이미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들에게도 문화는 분명히 미래의 세계 시장에서 주된 이슈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켜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참여 動機를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일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더 좋은 디자인으로 된 자동차가 훨씬 더 잘 팔릴 것이다. 더 우수한 디자인이란 수준 높은 문화의 産物이다.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문화를 잘 이해하게 된다면 그 나라의 물품에 더욱 마음이 끌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기업이 설립한 재단 중 三星文化財團은 (1965년 설립) 가장 광범위한 예술 후원자이다. 재단의 기금은 세 가지 출처에서 나온다. 즉 삼성 그룹 산하에 있는 회사들로부터 받은 연간 증여금(82.5%), 미술관이나 공연장과 같은 자체 문화 시설로부터 거둬들인 수입(15.0%), 기금으로부터 얻은 이자(2.5%)이다. 삼성문화재단의 예술 활동 지원 금액은 KBCA를 통한 많은 예술 지원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그 규모가 크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삼성문화재단은 재단의 예술 지원금의 거의 80 퍼센트를 그 재단에서 운영하는 미술관과 화랑에 주고 있다. 삼성의 호암 미술관과 호암 갤러리는 그 동안 한국의 전통 예술을 증진시키고 일반 대중이 해외의 미술을 한국에서 직접 접할 수 있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

10) 1998년 4월 17일에 면담을 허락해 준 김치곤 한국 메세나 사무총장께 감사드린다.

다. 그러나 삼성문화재단이 다른 예술 단체에게까지 원조를 확대하고 또한 한국 예술을 해외에 알리는 사업에 앞으로 더욱 큰 기여를 해 주기 바란다. 재단이 최근 국·내외활동에 지원한 금액의 비율은 9 : 1이다.¹¹⁾

다른 기업체들에 의해 운영되는 재단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삼성문화재단과 같은 대부분의 문화 재단들 역시 자체 미술관이나 화랑을 가지고 있다. 결국 이 재단들이 예술에 쓰는 돈의 많은 부분이 미술관 건립을 위한 부동산 취득과 그 경영을 위해 소요된다. 우리 사회의 더욱 건전한 예술적 성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재단들이 다양한 예술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자금 분배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 사회가 기업들에게 예술활동이나 또는 人道的 활동에 공헌해 주기를 바란다면, 그 기업들로서는 어떤 형태로라도 그 반대 급부의 혜택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즉 세금 공제라든지 광고 효과에 준하는 기업 이미지의 향상을 통한 판매 증가를 기대할 것이다. 근래 한국에서는 조세법上 예술 단체에 내는 기부금의 양이 그 회사 수입의 5퍼센트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즉 5퍼센트가 넘는 금액을 기부하더라도 그 초과액수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의 비율을 전체 수입의 7퍼센트로 올리려는 시도가 최근 있었으나 그렇게 될 경우 정부의 稅入이 상대적으로 줄고 또한 소액 주주들의 이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조세 체계의 개혁을 추진하여 점차적으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의 비율을 5퍼센트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V. 개인 財源을 예술 후원에 쓰도록 유도하는 방법

개인은 지위의 상징이라든지 예술 애호에 대한 私的인 만족이라든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예술활동을 지원한다. 미국에서는 그러한 개인 기부금이 예술 기금의 가장 큰 비율인 거의 8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¹²⁾ 그러나 한국에서는 오늘날 그런 수치를 算出할 방법조차 없다. 그 한 가지 이유는 과거에 예술을 위한 괄목할 만한 개인적인 기부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분명히 한국 사회가 앞으로 개척해야 할 부분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그 축적 과정이 어떠한가에 상관없이 개인의 富를 斷罪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금전적인 보상에 대한 무관심

11) 면담(1998, 4, 20)을 허락해 주시고 통계 숫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삼성문화재단의 한용의 부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12) 미치히로 와타나베, 앞의 책, p. 15.

이나 검소한 일상 생활 태도를 士大夫들의 중요한 도덕적 미덕으로 여겨 왔다. 또한 일반적으로 예술과 관련된 활동은 사치스럽고 향락적이라고 인식됨에 따라 사람들이 이를 기피해왔다. 이러한 이유로 특히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의 蓄財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 나라의 옛 속담에는 “개처럼 벌되 정승처럼 써라”하는 말도 있다. 그러므로 개방된 세계 시장경제 체제 속에서 합법적인 수단으로 축적된 富라면 그 돈을 예술을 포함한 숭고한 목적을 위해 쓰도록 장려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우선 우리 나라에도 National Endowments for the Arts와 같은 단체를 만들고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그 단체에 증여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예술 단체에 물려줄 것을 권장해야 한다. 기증한 금액에 대한 전액 세금 감면이라는 인센티브도 주어야 한다. 최근까지 자신들의 재산을 교육 시설이나 장학 재단에 기증하였거나 기증 희망 의사를 밝힌 사람들은 상당수 있었지만 예술 단체에 기부할 의사를 표현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것이 우선 순위로 보아 상당히 앞에 있는 항목이며 예술활동 자금을 위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예술활동에 지원금을 낼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이른바 매칭 그란트 (matching grants) 제도이다. 즉 개인이 백만원을 지원하면 공공 부문에서 같은 금액을 지원하여 이백만원 지원효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미국에서 잘 실행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예술 단체 역시 특정한 기획 활동을 위해서는 스스로 모금운동을 하는 노력을 보여야 하며 그렇게 모금된 금액에 정부에서 매칭 그란트를 주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 제도는 정부에게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공공 부문은 겨우 반값의 비용으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셈이므로 오히려 이익이다. 필자는 한국이 이와 같은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국립 미술관은 미술관 내의 특정 전시실에 기증자의 이름을 붙여준다거나, 또는 미술관내에서 운영하는 특별 기금에 그 기증자의 이름을 붙여주는 등 다양한 방법의 보답으로 개인에게 자금을 기증할 것을 권장해야 한다. 1996년에 개관한 上海博物館은 이 방식을 성공적으로 이용한 듯 하다. 박물관의 건설과 내부 장식에 든 총 비용 중 15 퍼센트를 부유한 개인들의 기증으로 충당하였다고 하며 그들의 이름을 각 室에 붙여주는 방식으로 禮遇하였다. 특별전이나 새로운 물품의 구입, 미술가와 미술사학자들의 연구 여행, 뛰어난 연구 업적이나 창조 활동에 대해 상을 주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의 이름으로 기금을 설립하는 것도 개인의 재산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러한 모든 기부금에 대하여 국가는 조세감면 혜택을 주어야 한다.

VI. 문화활동을 위한 財源의 보다 효율적 管理 방안

많은 정부 단체나 非정부 단체들이 예술 지원금을 관리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 비판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예술 경영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 2) 지나칠 정도로 많은 지원금 관리 비용; 3) 유사한 예술 단체들간의 협조 부족; 그리고 4)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다.

예술 경영이라는 분야는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생소한 것이다. 예술 경영은 예술에 관한 폭넓은 지식과 사업 수완을 요구한다. 현재 한국에서의 예술 경영 전공 과정은 단국대학의 경영학 석사(MBA)과정 내에 설치된 한 곳 뿐이다.¹³⁾ 이것을 좀 더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공연 예술이나 시각 예술과 같은 예술 분야에 대한 학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개개의 학생들이 그 분야의 특성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두 분야 중 한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하나의 補完策으로는 정부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예술에 관한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일이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삼성문화재단은 이러한 목적으로 몇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으나 아직은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지원금 관리 비용을 지나치게 많이 책정하는 문제는 공공 부문의 도처에서 볼 수 있다. 예술 단체 경영을 민영화한다면 이와 같은 상황을 현저하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 단체들 간의 지원금 관리에 관한 상호 협동과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한 방법으로는 공적·사적 지원을 받는 모든 예술 활동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를 웹 사이트(web site)를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할 의지만 있다면 오늘날과 같은 인터넷 시대에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처음에는 많은 투자를 해야 하지만 그 돈은 결코 낭비되는 것이 아니며, 결국은 예술 지원 프로그램이 더욱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경영될 것이다.

정부의 문화 정책은 일단 지원된 문화 활동에 관하여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한다. 이 점은 정부가 문화 정책에 있어 강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앞서 피력한 필자의 주장과 상충되는 것처럼 들릴는지 모른다. 그러나 일단 지원 정책에 대한 큰 틀이 만들어지면 예술 활동의 내용은 예술 단체에게 맡겨야 한다. 예술의 다양성과 창조성, 그리고 문화 유산에 대한 적절한 보호라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된다면 정부는 예술 단체와 예술가들의 자유를 보장하여 예술 활동이 자연스럽게 “전개”될 수 있도록 간섭을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13) 홍성찬, 『예술 경영 입문』(서울: 민음사, 1997), p. 184 참조.

Mobilizing Resources for Cultural Activities : Korea

Yi, Söng-mi

I. Culture as National Identity

In today's world of open economic market systems, where the boundaries among nations are becoming increasingly less meaningful, what distinguishes one nation and people from another is its culture. The very diversity of culture is what makes this world so interesting and exciting. Therefore, at the critical juncture of the twenty-first century, each country should rethink its policy on culture.

Samuel Huntington's famous hypothesis that the fundamental source of the next world conflict will not be primarily ideological or economic, but instead based on differences among civilizations¹⁾ has much truth in it. Our goal, then, is to avoid or at least minimize such clashes by promoting mutual understanding of cultures among different civilizations. Historically deep-rooted cultural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people and each civilization will not be easily accepted or understood by others unless the members of the respective civilizations make extraordinary efforts toward this end.

It seems contradictory to say that, in order to avoid or minimize the clash of civilizations at the fault lines between them, we need to strengthen and emphasiz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ivilization. However, such a seemingly contradictory effort could fundamentally turn the direction, that is, from conflict to peaceful coexistence. Promoting mutual respect and understanding among different cultures and civilizations through proper education of each other's cultural heritage and by effective dissemination of creative minds will be most instrumental in avoiding the forecasted clash.

In most Asian countries, particularly Korea, for realistic and pragmatic reasons, cultural issues have not been given priority over other matters such as defense, economy,

1) Samue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Foreign Affairs* Vol. 72 No. 3, Summer, 1993, pp. 22-49.

commerce and industry. Such low priority for culture in the minds of the policy makers of a country will soon result in irreparable damage to its cultural heritage and the creativity of the people, both of which are the essence of the true image of a nation. Therefore, a drastically new policy on culture, tantamount to an emergency measure for saving the very existence of national identity, should b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Historically, in China and Japan, the imperial court and Buddhist temples supported by the court respectively were the largest sponsors and supporters of the arts. In the second half of the seventeenth century wealthy merchants of late Ming and early Ch'ing China as well as of Edo Japan played increasingly important roles in patronizing the arts. In Korea, although the development of commerce in the late Chosŏn period produced some wealthy individual patrons, the development of the arts mostly depended on state sponsorship. Today, this historical pattern still holds true to a large extent.

However, the general world trend, and especially those in many Asian nations, show a marked decline in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for the arts. The current economic crises which have been sweeping through Southeast Asian nations and Korea since the latter part of 1997 compounded the situation. In 1998, the Korean economy had negative growth in its GDP for the first time in many decades. Moreover, the unemployment rate is also soaring to unprecedented levels.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difficult to raise the question of support for the arts.

The cultural heritage of a nation, however, cannot be recreated once it is lost due to the neglect of a generation. It needs continuous attention even in periods of dire economic difficulties. *If the state can no longer play the role of the principal guardian of culture*, other sectors of society should bear the major burden of responsibility. Private businesses, arts organizations themselves, and individuals should all participate in safeguarding the nation's cultural heritage and in promoting creative activities.

II. National Budgets for Culture in France and Korea

Many will agree that France holds the leading position as a nation of culture in world today. If one looks at France's national budget for culture, a lesson can be learned. Beginning in 1959, under the strong leadership of Charles de Gaulle, the French

government established an independent Ministry of Culture headed by André Malraux, and began allocating an increasing proportion of its general budget to this Ministry. By 1987, this proportion reached the amazingly high figure of 2.2 percent of the general budget.²⁾ Despite some criticism that the poor are subsidizing the tastes of the rich, French policy makers seem to have a strong belief that, in the end, the image of France as a nation of culture will benefit both the poor and the rich alike.

In today's world of mass media and mass culture, only a few cultural products and events are profitable, and self-sufficient, and these tend to be of types of popular arts. If a society wants to maintain a healthy diversity of its arts, arts activities that are neither profit-orientated nor popular should also be nurtured, protected, and provided. The task of safeguarding cultural heritage, for example, will rarely be profitable, and yet requires a large amount of funds. Furthermore, this protection demands a variety of specialists and trained personnel to protect the heritage and to promote it as national cultural resources.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e government should have a basic policy of support for those arts that do not have widespread popularity.

Through the re-structuring of the established administrative system, the newly inaugurated government (1997) in Korea devised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Although there was a brief period of an independent Ministry of Culture between 1990-1993, throughout much of modern Korean history, "culture" had to be combined with other affairs in a government ministry. At first it was the Ministry of Culture and Education, then, 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 and most recently, the Ministry of Culture and Sports. The aspiration of many Koreans to have an independent Ministry of Culture was not fulfilled once again. It is a reflection of the low esteem for culture and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culture in the minds of government leaders.

The 1998 budget for the cultural sector of the newly established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was decided at 0.57 percent of the general budget, ten percent less than it was expected to be for the fiscal year. Although former President Kim Young-sam promised to raise the cultural budget to one percent of the general budget during his presidency, that

2) Augustin Girard, "The Ministry of Culture," in Robert Stewart, *The Arts, Politics, and the Purse*, The Report of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Structure of Arts Funding Held by the Arts Council of Great Britain, London, 4-5 March 1987, p. 8.

did not occur during his five-year term. The current president, Kim Dae-jung, pledged during his presidential campaign that he would increase the cultural budget to one percent of the general budget by the year 2000. However,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in Korea will be the deciding factor in achieving that goal.

Under these circumstances, we need to sound an alarm to the whole country concerning the danger of these current cultural policies. Through the education of both policy makers and the general public, we must create an understanding that establishing an image of our country as a nation of culture is not only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our culture itself, but just as importantly, that we can help advance our commerce and industry abroad through it, thus benefitting our economy as well. Of course, this would be a long term goal and its results will not be immediately visible. Nonetheless, we should establish this goal before it is too late.

III. Mobilizing Resources by the Government

Increasing funds for the arts in Korea by gradually raising the proportion of the budget for the arts within the general budget will not in itself be sufficient for remedying the current situation. There are two other organizations under governmental auspices, namely the Korea Foundation (韓國國際交流財團) and the Korean Culture and the Arts Foundation (韓國文化藝術振興院) which help finance arts activities. In addition to direct government contributions for building up their endowments for future financial independence, both have other sources of income. The Korea Foundation also receives income from levies on passports (30% of the fee), while the Korean Culture and the Arts Foundation is the beneficiary of a tax on entrance fees to museums, performing arts events, and movie theatres (2~10% of the fee). However, in the case of the Korea Foundation, arts related activities constitute only five percent of its general budget.³⁾

The Korea Foundation's arts related aid is channeled to projects abroad such as lecture series, traditional dance and music performances. It also provides funds to museums in foreign countries for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a permanent Korean art gallery within

3) This is a roughly computed figure based on the Foundation's 1995 annual report.

the museum. During the past few years, the Korea Foundation either paid or promised to pay for the partial costs of establishing a permanent Korean Gallery at major museums in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in New York, the Los Angeles County Museum in Los Angeles, and the Asian Art Museum in San Francisco. In Europe, the British Museum in London, and the Musée Guimet in Paris also have received funds for future Korean Galleries. Numerous other smaller museums in the United States and in Europe have been given financial support for similar purposes. Perhaps the most successful and well publicized case was the Arts of Korea Gallery at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in New York.⁴⁾

When one considers the importance of Korean traditional art in relation to that of other Asian countries such as China and Japan, its representation in the major museums of the world is long overdue. Introducing our rich cultural heritage to the general public of the world seems to be one of the best ways to promote Korea's image as a nation of culture. The efforts of the Korea Foundation thus far should be applauded and moreover, greatly expanded in the future. More importantly, the allocation of funds for this purpose should be considered as a national priority. In order to increase the amount of such support, new sources of funding on a national scale should be sought.

It is desirable to create in Korea an organization similar to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 or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NEH) in the United States (established in 1965) which will set the basic direction for the support of the arts. Although the combined support of these two organizations accounts for only twelve percent of the arts support in the United States as of 1978,⁵⁾ their policy of advocating cultural pluralism sets a healthy tone for the promotion of diversity in arts activities. The low percentage of overall support by the NEA and NEH is unique to the United States where the support for the arts by individuals accounted for the phenomenal level of 67 percent in 1978⁶⁾ and increased to 83 percent in 1992.⁷⁾ Therefore, in a country such as

4) The Arts of Korea Gallery was formally opened on June 7, 1998, with a special inaugural exhibition, "Arts of Korea," which was on view until January 24, 1999. The museum also published a 512 page book, *Arts of Korea*. The Korea Foundation granted three million dollars for the construction of the gallery, and provided additional funds for the museum's educational programs.

5) *Munhwa Chaewŏn* (Cultural Resources), Yi Yŏng-gwŏn ed., (Seoul: Korean Foundation for Culture and the Arts, 1989), p. 280, chart 1.

Korea, where support by individuals is not yet significant, it is desirable to aim at raising the percentage of state-sponsored support for the arts.

Of the various methods to raise funds for cultural activities suggested by others, there are two areas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not yet attempted. One is the establishment of a cultural lottery, and the other, the initiation of a special tax for cultural purposes. The pros and cons on the issue of lottery have been discussed by Michihiro Watanabe in his "Background Document." I agree with his point that the lottery is more often played by low-income segments of the population, whereas the arts supported by such lotteries are appreciated by a more affluent strata of society.⁸⁾ Although there are many countries which operate lotteries for general or special purposes, the idea of lottery itself is not a healthy one, and therefore should not be encouraged.

The issue of imposing a cultural tax seems worthy of exploration. There will be stiff opposition to such a tax on the grounds that other areas of government will soon claim a similar right. However, when we realize how low our cultural image abroad is, it is justifiable to try this method for at least a limited time period. In the minds of many Americans, the image of Korea is still that of a country at war, as portrayed in the television series, "MASH." Korean industrial goods that have inundated their markets have not fundamentally altered their image of Korea. In other parts of the world, Korea remains still largely unknown.

There is precedence for such special purpose taxes in Korea as seen in such taxes as those on income, telephone, imported goods, excise, inheritance, and so on that were imposed from 1974 to 1990. The rates of these taxes were not uniform, and differed from case to case ranging from 2.5 to 30 percent. The primary purpose of these taxes was to modernize Korea's armed forces and to strengthen her defense capabilities. The special defense tax was abolished when the intended objectives were accomplished, and national revenue had grown considerably to meet defense needs. I believe this model merits another

6) Cultural Resources, op. cit., p. 280, chart 1.

7) Michihiro Watanabe, "Mobilizing Resources for Cultural Activities," A paper submitted to the UNESCO for the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 for Development, Stockholm, Sweden, 30 March - 2 April 1998, p. 15.

8) Watanabe, Ibid., p. 23.

try although, in the case of culture, the goal would be more difficult to define and its results even more difficult to assess. Yi Ö-ryöng, the former Minister of Culture (Jan. 1990-Dec. 1991), recently warned that we urgently need to kindle an emergency light for culture in order to ensure the healthy growth of our tree of culture.⁹⁾

In this age of growing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autonomy of localities and regions, the principle of sharing cultural expense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s worth mentioning. In this regard, the new government of President Kim Dae-jung recently announced a policy transferring the responsibility of safeguarding local cultural monuments to the respective local governments. Such a policy of local cultural autonomy seems to work well in Japan where each province operates its own museums effectively. The success in Japan appears to be attributable to the historical tradition of local centers of power and wealth. In Korea, however, this looks good only in principle and theory. In reality, the revenue earned from cultural institutions in the localities is far from adequate to cover the costs of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ir cultural assets and establishments. The lack of trained personnel to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safeguarding cultural properties is another serious problem. Korea should invest more in the education of high level professionals in the arts field as well as personnel in arts management.

IV. Arts Support from the Business Sector

There are two main sources of funds for arts support in the business sector of Korea. One is through the Korean Business Council for the Arts (KBCA or the Korean Mécénat) established in 1994 to which 161 businesses are currently participating.¹⁰⁾ The other is through foundations established by several big business groups including Samsung, Hyundai, and Daewoo among others.

The Korean Business Council for the Arts functions as an intermediary between arts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and business. In order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business in its activities, the KBCA should encourage medium- and small-sized businesses to join

9) Yi Ö-ryöng, "*Munhwa üi Pisangdüng Kyölttae* (Now is the Time to Kindle the Emergency Light of Culture)," *Chosön Ilbo* (Chosön daily), March 9, 1998.

10) Interview with Mr. Kim Ch'i-gon,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KBCA on February 17, 1998.

in by promising them direct "rewards" not only in the form of tax benefits, but also in the increased sales of their products by promoting their image as guardians of culture. Big businesses already participating should be provided added incentive to continue their support with the argument that culture will eventually be a key issue in the future global market. For example, a superiorly designed automobile will sell better if all other requisites are equal. A better design is the product of a high level of culture. Needless to say, a better understanding of a nation's culture makes its products more attractive.

Of the foundations established by big business groups, the Samsung Foundation of Culture (established in 1965) is the largest sponsor of the arts. The funds for this foundation have three sources: annual donations from the companies under the Samsung Group (82.5 %); earnings from its own cultural establishments such as museums and a performing arts hall (15.0%); and interest from its own endowment (2.5%). It is significant to point out that the amount of the arts support by the Samsung Foundation of Culture alone is almost equal to the support for the arts activities through the KBCA.

However, the Samsung Foundation of Culture has under its management its own museums and galleries that account for nearly eighty percent of its funding for the arts. There is no denying that these institutions (Ho-Am Art Museum and Ho-Am Art Gallery) have greatly contributed in promoting Korean traditional arts and introducing arts from abroad to the general public in Korea. But one also hopes that the foundation would extend more aid to other arts organizations, and more to promoting Korean art abroad. The foundation needs more encouragement, especially towards the latter activities. Currently, the ratio of spending at home and abroad is 9: 1.¹¹⁾

There are similar problems with foundations operated by other corporations. Most of these foundations, like the Samsung Foundation of Culture have their own museums and galleries. As a result, a large proportion of their spending on the arts is earmarked for the purchase of real estate for a museum and for its management. It seems that, for the healthier growth of the arts in our society, there should be general guidelines for the balanced distribution of funds among diverse arts activities by these cultural foundations.

11) The Samsung Foundation of Culture kindly provided me with these statistics on its spending at the time of my interview (February 20, 1998) with Mr. Han Yong-woe, the deputy director of the Foundation.

When a society expects its business sector to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the arts or for any other humanitarian causes, it is natural for the contributors to anticipate in return some form of benefit, be it a tax break or direct profits through the promotion of the company image similar to advertising. Currently in Korea, the tax law is such that the amount of donation to arts organizations cannot exceed five percent of a firm's income. Any donation exceeding this figure will not be exempt from taxation. There has been an attempt to raise the percentage of tax exempt donations to seven percent, but this was not realized for reasons of decreased revenue on the part of the government on the one hand, and for the protection of the minority stockholders' profits on the other. The government should push for this reform of the tax system and gradually raise the percentage of tax exempt donation above the current five percent.

V. Mobilizing Resources of Individuals

Individuals donate funds to the arts for various reasons, including as a status symbol or for personal satisfaction. In the United States, such individual donations account for nearly 83 percent of the total, the largest single source of funds for the arts.¹²⁾ However, in Korea, there is no hope of tallying such a figure today. One reason is that there has not been a significant amount of individual donations to the arts. Therefore, this is definitely one area Korean society should explore in the future.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growing tendency in our society to condemn individual wealth regardless of how it was accumulated. Traditionally, in Asian cultures, aloofness from monetary reward and frugality in daily life have been considered as important moral virtues of scholar-officials. Also, arts related activities have often been shunned as they were considered extravagant and hedonistic. Perhaps this is the reason for the condemnation of wealth, especially of high government officials. On the other hand, there is an old saying, "make money by all means, but spend it nobly." So, in this world of an open market economy, as long as the wealth has been accumulated through legal means, we should encourage it to be spent for noble causes including the arts.

12) Michihiro Watanabe, *Ibid.*, p. 15.

Wealthy individuals should be encouraged to bequeath their assets to organizations such as the National Endowments for the Arts whose creation was recommended above, or directly to arts organizations. An incentive should be given for a full tax exemption for the amount donated. Lately there have been some individuals who donated or expressed the desire to donate their assets to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scholarship foundations, but few if any have done so for arts organizations.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make an effort to inform people of the high priority and urgent need for funding in the arts.

An added incentive can be given to prospective individual donors by a system of grant-matching from the public sector. This system is well utilized in the United States, but nearly unheard of in Korea. In this system, if an individual donates a certain amount of money to a special fund in his or her name, that amount will be doubled by a matching grant from the government. Arts organizations should also be encouraged to raise funds for certain projects, which then will be matched by the government. This seems costly for the government, but in fact the public sector is achieving a certain goal at only half the cost. This is definitely a concept worth exploring in Korea.

National museums should encourage individuals to donate funds with varying types of rewards such as *naming a gallery in the museum or a special fund after the donor*. The newly built Shanghai Museum seems to have successfully employed this method. Of the total cost of the new building, fifteen percent was collected from individuals, who in turn had individual galleries named in their honor. Setting up funds in the name of a particular individual for special exhibitions, for acquisitions, for travel of artists and art historians, for awarding excellent research results or creative activities are some possible ways to mobilize individual wealth. All such donations should be given tax benefits.

VI. Towards a Better Management of Cultural Resources

Many government or non-government organizations have been criticized for their management of funds for the arts. These criticisms can be summed up as follows: 1) lack of understanding or professional knowledge in the field of arts management; 2) inordinately large overhead expenses; 3) lack of cooperation among similar arts organizations; and 4)

excessive government intervention.

The field of arts management is relatively new in most Asian countries, and especially in Korea. It requires both broad knowledge of the arts and business skills. Currently, there is only one MBA course in Korea that has a major in Arts Management.¹³⁾ In order for a program such as this to be more effective, it is necessary for students to have had an undergraduate education in the arts, be it performing arts or visual arts. Also it is desirable for each student to concentrate on one of the two areas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special nature of their field. Another solution for remedying this problem is providing some form of general education in the arts for government officials. The Korean Culture and the Arts Foundation and the Samsung Foundation of Culture have provided several programs for this purpose, but as of yet there have not been many visible results.

The problem of inordinately large overhead costs exists throughout the public domain. The privatization of arts management organizations will markedly improve the situation.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among the arts organizations and their funding can be achieved by building a database on all publicly and privately supported activities and making this accessible through public means such as a web site. Information sharing in this age of the Internet is easily achieved if there is sufficient desire. An initial investment is needed for this end, but it will be money wisely spent. When this is achieved, arts support programs will be better balanced and rationalized.

The government's cultural policy should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non-intervention. This may sound contradictory at this point as I have been advocating strong initiatives in the government's cultural policy. But once the framework of a policy of support has been created, the contents of the arts activities should be left to the arts organizations themselves. As long as the arts activities ensure the diversity, creativity and adequate protection of the nation's cultural heritage, free rein should be given to the arts organizations and artists themselves so that the arts will "evolve" on their own course.

13) In Dan'guk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See Hong Sŭng-ch'an, *Yesul Kyŏngyŏng Immun* (Introduction to the Arts Managements) (Seoul: Minŭm-sa, 1997), p. 184.